

산주산쇼도

그윽함과 고상함이 느껴지는 이 불당에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구제로 이끌겠다고 맹세한,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상 33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당은 천 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순례길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사이코쿠 산주산쇼)의 축소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의 27 번째 절로서 이 순례길의 총 거리는 1,000 킬로미터 가까이 되며, 7 개 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는 8 세기에 성립되었으나 에도 시대(1603~1867)에 이르러서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범화경의 한 구절에 따르면 관음보살에게 구제를 바람으로써 누구나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33 관음을 전부 순례한 사람은 33 관음을 참배하고 보인(寶印)(부처나 보살의 인(印))을 얻음으로써, 염마대왕으로부터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토신앙은 에도 시대에 특히 널리 퍼져 순례가 여행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의 여정은 길고 어려움이 따랐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에는 지방 간의 왕래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진취적인 승려들이 각각 떨어진 수십 군데의 장소를 순례하는 대신, 순례자들이 한 곳에서 33 관음, 또는 그 일부를 참배할 수 있는 장소인 ‘우쓰시레이조’(성지를 모방해 만든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엔교지 절에 찾아오면 33 관음을 모두 참배하고 순례 전체를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